

지금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은 1만 5 000여리에 달하는 멀고 먼 장성을 이어가시며 조종친선의 역사와 세계정치사에 뜻깊게 새겨질 역사적인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비공식방문을 진행하시고 조국에 돌아오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끊어오르는 격정과 감사의 정을 금치 못해 고하셨다.

지난 5월 20일부터 26일 사이에 진행된 경애하는 장군님의 이번 중국에 대한 역사적인 방문은 조중 두 나라 관계를 가일층 발전시키고 조국인민들의 강성대국건설과 자주통일위업수행을 험하게 고무추동하는 사변이며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데서도 큰 의의를 가지는 뜻깊은 계기로 된다.

조선과 중국은 산과 강이 잇닿아 있는 친선적인 린방이며 조종친선은 꼬로써 맺어진 오랜 전통을 가지고 역사의 온갖 풍파를 헤치면서 대를 이어 계승강화되고 있는 공고하고 두터운 친선이다.

조종친선을 부단히 강화발전시키기 위해 지난해에 두차례의 중국방문을 진행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9개월 만에 또다시 중국을 방문하시어 조종친선의 위력을 다시금 내외에 험하게 표시하였다.

중국의 당 및 국가령도자들은 꼬로써 맺어진 조종친선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또다시 중국을 방문하신 위대한령도자

# 조종친선의 불패의 위력을 과시한 일대 사변

김정일장군님을 열렬히 환영하였으며 최대의 성의를 다하여 극진히 환대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방문기간 호금도주석과 온가보, 가경림, 리장춘, 습근평, 리국장, 하국강, 주영광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들과 각각 상봉하시고 따뜻한 담화를 나누시였다.

회담에서 호금도주석은 김정일동지의 중화인민공화국방문이 두 나라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는데서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면서 장군님의 중국방문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호금도총서기동지와 또다시 상봉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중앙의 지도간부들을 국경역에까지 파견하여 친절히 맞아주고 방문기간 뜨거운 환대를 베풀어준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하시였다.

두 나라의 최고령도자들께서는 조종관계를 가일층 발전시킬 때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시었으며 완전한 견해의 일치를 보시였다. 또한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선 조종친선협조관계를 대를 이어 계승하고 공고발전시켜나가는 것은 남

이 대신 할 수 없는 공동의 성스러운 책임과 확고부동한 팀장이라는 대에 대하여 견해를 같이 하였다.

호금도주석은 중조친선협조관

제를 시대와 더불어 전진시키는 것은 새로운 시기, 새로운 정세의 요구라고 하면서 중국공산당과 중국정부가 두 나라로 대체혁명가들의 고귀한 넋이 어려 있는 전통적인 조종친선의 바통을 굳건히 이어가는데서 혁신적 책임을 다해갈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회담에서는 최근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된 조종 최고령도자들의 혁신적인 상봉 이후 두 나라 사이의 선현, 우호, 친선, 협조가 더욱 증진발전 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고 사회주의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두 당, 두 나라 인민들의 투쟁에 대한 호상지지와 현대성이 표시되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번에 중국의 동북지역과 화동지역을 방문하시면서 여러 기업소들과 과학연구기지 등을 돌아보시고 중국인민이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하고 있는 성과들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중국의 동북지역과 화동지역의 당, 정권기관 일군들과 인민들은 자기들의 지역을 친히 방문

하시여 중조친선의 아름다운 역사를 세기리를 이어 빛내고 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뜨거운 친선의 정을 안고 중국을 또다시 방문하시여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대외활동을 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과 상봉한 중국의 온가보총리는 건강에 넘치신 김정일동지를 다시 만나뵙게 된데 대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였으며 길림성과 강소성, 중국제1자동차집단공사 등에서는 성의껏 준비한 선물을 경애하는 장군님께 드리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는 이번에 수령님께서 중국방문시에

리용하신 승용차도 돌아보시였고

그 공장의 종업원들이 수령님의

체취가 어려여 있는 《홍기》승용

차를 수십년이 지난 오늘까지 소

중히 보존관리하고 있는데 대하여

사의도 표시하였다.

이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이번 중국방문이 어버이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부터 생의 마지

막시기까지 이루하신 불멸의 업적을 세계만방에 더욱 빛내이시기 위한 숭고한 도덕의의 대장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이번 중국방문은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전반적리익에 부합된다고 인정하면서 이를 위해 의사소통과 조율을 잘 해나가는데 대해 의견을 같

으셨다.

여러 나라 통신, 신문, 방송이 보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빼앗긴 조국을 찾기 위해 모친 시련과 난관을 헤쳐오신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세세년년 전하는 경박호의 후를 물을 깊은 추억속에 바라보시며 숭엄한 감정을 금치 못하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또한 김일성주석께서 지난 시기 중국을 방문하시면서 뜻깊은 발자취를 새기신 장춘시, 양주시, 남경시를 찾으시고 조종 친선의 혁신에 남기신 수령님의 업적을 감회깊이 더듬으시였다.

장춘에 있는 중국제1자동차집단공사를 참관하실 때에는 1975년 어버이수령님께서 중국방문시에 리용하신 승용차도 돌아보시였고 그 공장의 종업원들이 수령님의 체취가 어려여 있는 《홍기》승용

차를 수십년이 지난 오늘까지 소

중히 보존관리하고 있는데 대하여

사의도 표시하였다.

이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이번 중국방문이 어버이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부터 생의 마지막시기까지 이루하신 불멸의 업적을 세계만방에 더욱 빛내이시기 위한 숭고한 도덕의의 대장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이번 중국방문은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전반적리익에 부합된다고 인정하면서 이를 위해 의사소통과 조율을 잘 해나가는데 대해 의견을 같

으셨다.

여러 나라 통신, 신문, 방송이 보도

하였다.

호금도주석은 중국측은 조선족과 함께 공동의 노력으로 조종친선에 새로운 생기와 활력을 주입하고 중조선련우호관계를 추동하여 더욱 폭넓게 발전시킴으로써 두 나라, 두 민족들에 보다 큰 복리를 마련하여 주며 동북아시아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더 큰 기여를 하려 한다고 강조하였다.

두 나라 최고령도자들께서는 여러 분야에서 조종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두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힘있게 추진시키고 쌍방의 공동리익과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더 잘 수호하고 촉진시키는데 유리하고 하면서 이를 위한 일련의 대책적 문제들을 토의하고 합의를 보시였다.

이에 대해 중국의 한 신문은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최고인 중국방문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를 위해 북중량국이 함께 노력할것이라는 점을 전세계에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라고 전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번에 진행하신 중화인민공화국 비공식방문은 호금도주석과 중국의 당과 정부의 특별한 관심과 뜨거운 환대속에 성과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이것은 두 나라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혁신적사변으로 된다.

본사기자 리 설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과 령도의 현명성을 깊이 체득하고 있다.  
—조선혁명박물관에서—

## 애국현신의 1만 5 000여리 대장정

지금 온 나라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장장 1만 5 000여리에 달하는 역사적인 대외활동을 하시고 조국에 돌아오신 소식에 접하여 저마다 격정과 흥분을 터치고 있다.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

조국인민들에게 만복의 대문을 열어주시기 위해 올해에도 정초부터 날파 달을 이어 초강도 강행군현지지도의 길에 계시는 장군님이시다.

력사적인 중국방문을 앞둔

며칠 사이에 만도 장군님께서는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평양방직공장, 락랑봉화복복공장, 평양수지연필공장을 비롯한 평양시내 경공업공장들을 현지지도하시었으며 경제강국을 건설하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중요한 임무를 맡고있는 남홍청년화학련합기업소에 대한 현지지도도 하시였다. 이뿐이 아니다.

동해안북부에 자리잡고 있는 통천과 수동장과 더 성과수동장을 찾으시여 하얀 사파꽃 바다가 펼쳐진 가슴흐뭇한 전경을 보아주시면서 인민을 위해 과일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릴 밤향과 방도들을 가르쳐주신 장군님이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중국방문기간 어버이수령님의 밭자취가 짙어져있는 역사의 고장들을 돌아보시고 중국의 당 및 국가지도자들과 만나 담화와 회담도 하시였으며 많은 기업소, 단위들도

향상을 위해 순간의 휴식도 없이 정력적인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 길로 중국에 대한 혁신적인 비공식방문을 진행하시였으니 그이의 고고와 현신을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으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번 중국방문은 그이께서 조종친선을 얼마나 중시하시는가에 대한 뿐만 아니라 민은 현지지도의 나날 조국의 수많은 가정들을 찾으시여 미래와 행복을 축복해주시던 그이의 환한 미소를 그려보았다.

불과 6박7일 동안에 1만 5 000여리의 방문길을 이어가고 그처럼 많은 일을 하시느라 장군님께서 언제 휴식인지를 대로 하시였는가.

그는 김정일령도자의 이번 중국방문은 그이께서 조종친선을 얼마나 중시하시는가에 대한 뿐만 아니라 민은 이제는 그이께서 머나먼 대외방문의 피로도 푸시며 하루라도 편히 쉬워옵기를 간절히 바라였다.

하지만 국경을 넘어서신 장군님께서 향하신 곳은 평양이 아니라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대적전장이 펼쳐진 천발전선설장이었다.

그 길로 이번에는 동해안의 고산과 수동장을 현지지도하고 양여연구소도 찾아주시여 인민들에게 피파과 물고기를 풍족히 먹일 방도를 논해주시신 장군님이시다.

정녕 이 세상 모든 길은 끝이 있지만 인민을 위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의 초강도 강행군의 길은 끝이 없다.

그 애국현신의 길에서 강성대국의 새 아침이 밝아오고 후손만대의 번영과 자주통일의 그날도 앞당겨져오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인생을 쥐여짜면 인민이라는 두 글자밖에 없을 터놓으

시던 장군님의 고결한 인생관이 1만 5 000여리에 비껴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중국을 비공식방문하고 조국에 돌아오시였다는 감격적인 보도에 접하고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은 이제는 그이께서 머나먼 대외방문의 피로도 푸시며 하루라도 편히 쉬워옵기를 간절히 바라였다.

그는 또한 최근 종조관계에서 이룩된 새로운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전통적인 종조친선의 대를 훌륭히 이어가는데서 혁신적책임을 다해나갈때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이께서는 중국당과 정부에서 이룩된 새로운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 말을 듣고는 놀랄 따름이다.

그는 또 다른 종조관계에서 조종친선을 열마자 펼쳐진 회담을 진행하고 있다.

그이께서는 중국당과 정부에서 이룩된 새로운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 말을 듣고는 놀랄 따름이다.

그 애국현신의 길에서 강성대국의 새 아침이 밝아오고 후손만대의 번영과 자주통일의 그날도 앞당겨져오고 있는 것이다.

그 애국현신의 길에서 강성대국의 새 아침이 밝아오고 후손만대의 번영과 자주통일의 그날도 앞당겨져오고 있는 것이다.

본사기자 김경수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중화인민공화국을 비공식방문하신 소식을

여러 나라 통신, 신문, 방송이 보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이번에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부터 생의 마지

막시기까지 이루하신 불멸의 업적을 세계

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더

큰 기여를 하려 한다고 강

조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호금도주석과 중국의 지도간부들이 뜨거운 환대에 깊은 사의를 표하고 중국공산당창건 90돐을 맞게 되는 전체 중국공산당원들과 인민들이

제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보내

내시였다.

그이께서는 방문기간 드넓은 중국대륙에서 이룩되고 있는 성과들에서 급속히 변모되고 있는 중국대지의 약동하는 발전상에 대해 직접 목격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시였다.

중조 두 당, 두 나라

최고령도자께서는 두 당

두 나라 관계를 발전시킬 때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완전한 견해의 일치를 보

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중국인민이 제12차 5개년계획의 첫해인 올해에 자랑찬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고 전

하였다.

이번 중국방문은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정세와 관련

하여 조선반도정세 등 중

요문제들에서 두 나라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번 중국방문은 조선반도와

요즘 남조선에서는 그 무슨 『통일』 타령이 요란스레 고취되고 있다.

얼마전에도 리명박은 도이월 란드를 행각하는 기회에 『통일을 이뤄야 한다는 신념』이니, 『통일의 숨결』이니 뛰니 하며 낯간지러운 말을 많이 늘어놓았다. 그는 해외행각을 마치고 돌아온 지금도 『통일이 래일 될 듯이 준비해야 한다.』느니, 『진정한 애정』이니 뛰니 하는 희미운 소리들을 늘어놓고 있다. 리명박이 지난해 『8·15 경축사』라는데서 그 무슨 『3단계 통일방안』과 『통일세』에 대해 운운했던 것도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남조선 통일부의 어종이며 종이들도 『3대 공동체 추진구상』과 『남북 공동체 기반 조성 사업』을 떠들며 그를 위한 『설명회』와 『정부내 협의』를 가진다. 『외부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한다 하며 분수령을 펴워내고 있다. 얼마전에도 통일부는 『대학 사회내의 통일론의 활성화하고 통일 문제에 대한

# 안팎으로 궁지에 몰린 자들의 『통일』 타령

관심을 확산한다.』는 미명하에 『대학생 통일아카데미와 통일로 롤을 새로 시작한다.』고 떠들어댔다.

마치 통일이 당장 오기라도 하는 듯이 부산을 퍼우지만 속내를 보면 반통일 분자들의 역겨운 눈가림식 행위이고 반통일 행위이다.

다 아는 것처럼 북남관계의 진전은 통일의 전제이다. 막혔던 북남관계가 갑자기 열려 통일이 순간에 온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고 허황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북남관계를 살펴보면 대화도 없고 협력도 없으며 접촉과 협상을 비롯하여 모든 것이 꽉 막힌 단절 상태, 완전 파국 상태에 있다. 통일에로 가는 북남관계가 아니라 대결로 치닫고 전쟁으로 가는 것이 오늘의 참담한 북남관계 현실이다.

사례를 이렇게 만든 죄악의 장

본인이 국도의 동족대결에 매달리고 있는 남측당국이고 따라서 그들에게 다른 무엇에 앞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대결정책에 대해 민족 앞에 사죄하고 『대북정책』 전환의 바른 길에 들어서는 것일 것이다.

그런데 그런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돌아다니며 『통일』을 운운하고 그 무슨 『준비』를 한답시고 복타소동을 퍼우고 있으니 이게 파연 무슨 놀음인가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내외여론에 대한 참을 수 없는 기만이고 『통일』의 탈을 쓴 또 하나의 체제 대결 소동의 다른 것이다.

이 피이한 놀음들의 밀바탕에는 북남관계를 오늘의 파국 상태로 몰아간 저들의 책임을 가리우고 저들도 무엇을 했다는 인상을 풍기기 위한 너절한 속임수가 것 들어있다.

집권 3년 수개월간 동족대결 정책에 매달리느라 현 남조선 보수 『정권』에게는 북남관계에서의 실적이란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었다. 있다면 북남관계를 파괴해 고 있는 것이다.

남조선 보수당국이 북남관계에서 그 무슨 『일관된 원칙』이니, 『통일의 긴 려정에 있어 획기적인 전환점』이니, 『바른 남북관계 개정법』이니 뛰니 하고 떠들어 대고 있는 것도 저들의 반통일 적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한 계변이다. 말하자면 북파 대화도 안하고 협력도 안했지만 저들나름대로 통일에 위해 뭔가 했다고 여론을 기만하는 것이다.

남조선의 보수 세력이 그 어느 때보다 목에 꾀대를 둑구며 『통일』 타령을 늘어놓고 있는 것은 또한 심각한 통치 위기에 서 벗어나려는 궁여지책의 산물이다.

지금 리명박 『정권』은 국도의

어져 있다.

이런 데로부터 리명박 보수당은 저들도 통일을 위해 뭔가 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런 복타소동을 퍼우고 있는 것이다. 남조선 보수당국이 북남관계에서 그 무슨 『일관된 원칙』이니, 『통일의 긴 려정에 있어 획기적인 전환점』이니, 『바른 남북관계 개정법』이니 뛰니 하고 떠들어 대고 있는 것도 저들의 반통일 적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한 계변이다. 말하자면 북파 대화도 안하고 협력도 안했지만 저들나름대로 통일에 위해 뭔가 했다고 여론을 기만하는 것이다.

사회 각계의 원성을 조금이라도 누르자면 『대북정책』에서 뭔가 변화를 보여야 하겠는데 보수 세력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이 된 그가 그렇게 할 리 만무하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안절

통치 위기에 빠져 있다.

동족대결과 전쟁, 반민족적인 정책만을 추구하는 『실용정부』에 대한 인민들의 환멸과 분노는 하늘에 닿고 있다. 특히 6·15 이후 북남관계에서 이룩된 모든 것을 말아먹고 동족 사이의 관계를 총포성이 물어부는 전쟁국면으로까지 몰아간 보수당국에 대한 남조선 인민들의 분노가 국도에 이르고 『자발적인 대북정책』의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가고 있다.

집권 세력 내에서 까지 『대북정책 방향 수정이 필요하다.』고 아우성을 치는 형편이다.

사회 각계의 원성을 조금이라도 누르자면 『대북정책』에서 뭔가 변화를 보여야 하겠는데 보수 세력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이 된 그가 그렇게 할 리 만무하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안절

부질하고 있는 남조선의 통치 세력이 물에 빠진 자지루파기라도 잡는다고 속에 없는 『통일』 타령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남조선 보수당국의 『통일』 타령은 바람 앞의 초불 신세가 된 저들의 궁색한 처지를 보면 해보려는 손길이 공허한 데에 지나지 않는다.

리명박 『정권』의 대결적 본성을 너무도 뚜렷히 깨닫고 있는 남조선인민들이 이따위 허황한 『통일』 타령에 귀를 기울이겠는가.

그것은 오히려 위선자의 정체만을 드러낼 뿐이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다. 누구도 저들 떠보지 않는 구차스러운 놀음을 요란스레 벌리며 목에 꾀대를 둑구어보았던 자세 목이나 아픈 법이다.

민족은 이미 남조선의 대결 『정권』에 파멸을 선고하였다. 그 파멸의 함정에서 빠져나갈 길은 어디에도 없다. 그것은 자기가 판 함정이고 제스스로 목에 맨 울가미이다.

최광혁

## 리명박 역적 폐당과 더 이상 상종하지 않을 것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

민족 공동의 전취물인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파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 리명박 역적 폐당의 반공화국 대결책 등은 집권 후 반기 에 들어서면서 더욱더 악랄해지고 있다.

요즘에는 하루 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른다고 우리 혁명의 수녀부와 우리의 신성한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비난도 수를 계속 높이면서 못된 짓만 풀라가며 하고 있다.

원래 없는 것을 날조해내고 악정은 미화하며 그것으로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파괴하고 평화번영의 길에 인위적인 장벽을 쌓고 있는 것이 다름아닌 리명박 역적 폐당이다.

지금도 감히 그 누구의 핵포기와 당치 않은 『사파』에 대해 입버릇처럼 훠쳐면서 『베를린 제안』의 그 무슨 『진의』에 대하여 주제넘게 떠들고 있으며 날조된 사건과 정정당당한 우리의 자위적 조치를 걸고 북남관계를 수습할 수 없는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

지어 전제 조건 없이 폭넓은 대화와 협상으로 화해와 협력, 평화

와 통일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우리의 아량 있는 제안에 대하여 암담질을 하면서 시간을 끌면 저들이 바라는 『급변 사태』가 올 것처럼 내외여론을 오도하고 있다.

얼마전 일본에 건너간 리명박 역도는 또 다시 우리의 핵 문제를 걸고 주제넘는 맹인도 서슴지 않았으며 서둘러 돌아가서는 감히 그 누구를 『정의』를 가지고 어제 보겠다는 회의로운 소리까지 훼내고 있다.

이런 속에서 피뢰군부호전 광들은 지난 5월 23일부터 경기도 양주와 인천시의 화약대 풍기는 사격장에 솔한 피뢰군을 내몰아 총포탄을 마구 쏘아대는 광기로 부리고 있다.

한편 남조선의 반공화국 보수 세력은 전투 환경 부과 쇄신자들에 의해 감행된 5·18 광주 대학 살만행까지 『북 특수부대의 소행』이었다고 국제 무대에 들고다니는 추래를 부렸다.

리명박 역적 폐당의 반공화국 대결책 동이 극한점에 이르고 있는 이 시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 위원회는 진정한 민주화의 폭풍이

회는 다음과 같은 원칙적립장을 내외에 천명한다.

1. 우리 군대와 인민은 리명박 역적 폐당과는 더 이상 상종하지 않을 것이다.

역적 폐당은 이미 동족으로 살기를 그만둔지 오랜 반공화국 대결 광신자들의 무리이며 정치도 군사도 모르는 무지의 광개집단이다.

제나름의 판단대로 스스로 망할 때까지 그 무슨 『원칙론』을 고수하며 『기다림 전략』에 따라 『급변 사태』를 실컷 기다려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광기로 부리고 있다.

시간이 금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역적 폐당일 것이다.

2. 리명박 역적 폐당의 반공화국 대결책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거족적인 전면 공세에 진입할 것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전면 공세는 무자비한 공세이다.

그것은 또한 해내외 온 민족이 떨쳐나서게 될 공세로서 역적 폐당이 정치 무대에서 매장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대세는 진정한 민주화의 폭풍이

역적 폐당의 본거지에서 일제 된다는 것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3. 우리 군대와 인민은 당면하여 역적 폐당의 대결 소동에 맞서기 위한 실제적인 행동 조치들을 취하게 될 것이다.

역적 폐당이 대화와 접촉을 거부하고 화해와 협력을 차단봉을 내린 이상 우리 군대는 1차적으로 북남 통행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유지하여 온 동해지구 북남 군부 통신을 차단하고 금강·간지구의 통신 련락소를 폐쇄하게 될 것이다.

어리석은 기대를 가지고 계속 매달리고 있는 역적 폐당의 반공화국 심리전에 대하여서는 이미 경고한 대로 임의의 시각에 임의의 대상을 목표로 불의적인 물리적 대응을 따라세우게 될 것이다.

리명박 역적 폐당은 북남관계를 최악의 사태로 몰아넣은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으며 민족 앞에 저지른 죄악으로 하여 력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주제 100(2011)년 5월 30일

평양

## 정세를 극단으로 몰아가는 불장난

지금 남조선에서는 공화국에 대한 무력 침공을 노린 전쟁책 동이 하늘과 땅, 바다에서 전제 없이 규모로 벌어지고 있다.

얼마전 남조선 호전세력은 해병대 무력을 내몰아 베트남과 연평도 일대에서 포사적 훈련을 벌리었으며 경기도 일대를 비롯한 남조선 전역에서 각종 형태의 애완기 동훈련을 벌려놓고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켰다. 최근에 진행된 남조선 강경 미군 주도 하의 대규모 합동 군훈련에 이란 것도 그 누구의 『전면 전도방』이라는 미명 하에 공화국을 선제 타격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려는 극히 도발적이고 위험 천만한 불장난 소동이었다.

이 모든 것이 조선반도의 첨예한 긴장을 폭발 국면으로 끌어가려는 계획적인 책동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공화국은 조선반도에 조성된 긴장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지금껏 성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었다. 그러나 남조선 당국은 『천안』 호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한 그 무슨 『책임 있는 조치』와 『핵문제』를 계속 거들며 대화를 회피하고 북침 전쟁책 동에 갈수록 열을 올리고 있다.

남조선의 군부 호전세력은 그 무슨 『도발 대비』를 운운하며 년초부터 비상 전투 배치 훈련, 사격 훈련, 후기 전술 훈련 등 각종 불장난 소동들을 벌렸으며 2월 말부터는 외세와 약합하여 공화국을 선제 타격하기 위한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 군사 연습을 발동적으로 감행하였다.

특히 엄중한 것은 『북위 협』의 간관 밀에 조선서 해상에서 북침 전쟁 연습의 포성을 매일 같이 울리고 있는 사실이다. 조선서 해 5개 섬과 그 일

에서는 그 누구의 『기습 상륙 및 점령 상황』을 가상한 해상 사격 훈련과 전쟁 모의가 련이어 벌어지고 있고 5월 말에는 그 무슨 『대 규모 연합 전대 훈련』이니, 『태극』이니 하는 전쟁 연습이 본격적인 단계에서 감행되고 있다. 이에 병행하여 미국은 6월 1일부터 F-15E 전투기 12대와 병력 400명을 전라북도 군산에 배치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7월에는 백령도 일대에서 처음으로 대규모의 남조선 미군 연합 훈련이란 것도 그 누구의 『전면 전도방』이라는 미명 하에 조선반도의 국경 훈련이란 것을 벌여놓고 있다.

현재 이곳에는 상대방을 자극하는 자그마한 군사적 행위도 순간에 군사적 충돌과 전면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고도의 긴장이 조성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전세력

본사기자 윤현주

이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무력 증강과 전쟁 연습 등을 더욱 발악적으로 벌리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나 새로운 군사적 충돌을 일으키고 그것을 기회로 전쟁 연습의 불을 질러보려는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책동의 산물이다.

남조선 당국이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겨레의 한결 같은 의사와 요구를 외면하면서 전쟁 연습을 계속 발광적으로 벌려놓음으로써 조선반도의 평화는 엄중히 위협당하고 핵 전쟁 발발의 위험은 끊임없이 고조되고 있다. 나날이 전쟁에 치닫는 엄중한 정세를 타개하고 조선반도의 평화를 보장하자면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남조선 보수당국의 북침 전쟁 도발책 동을 저지시켜야 한다.

남조선인민들은 북남관계를

파국의 수렁에 몰아넣고 동족을 무력으로 해치려고 발광하는 남조선 보수당국에 대한 치솟는 분노를 금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현 보수당국에 의해 『남북관계는 통일을 통해 단한 걸음도 나아지지 못한 6·15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갔다.』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남조선 보수당국이 미친듯이 벌리고 있는 북침 전쟁 도발책 동은 북남관계 개선과 통일을 저애하는 기본 장물이다.

동족 대결과 북침 전쟁의 길은 그들 자신을 파멸에 몰아가는 길이다.

남조선 호전세력은 저들의 무모한 북침 전쟁 도발책 동이 초래할 엄중한 후파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달아온 전쟁 열을 석혀야 할 것이다.

그에 맞서는 대북 정세는

이제 더 이상은 허용할 수 없으며 저들의 북침 전쟁 도발책 동을 전제로 한 반통일 대결부수로 전락시킨다.

남조선 집권자는 처음 통일부 장관으로 막제하였던 남조선

에서는 『한국판 네오콘』, 『리

명박과 한나라당보다 더 한 대

북 강경론자』라고 하면서 그의

통일부 장관임명을 결사 반대하

여 무산시켰다.

여기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

